

봉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또한 몸 안에 있는 동안 몸 없이 되는 너희의 경험도 늘려라.

오늘 밥다다는 사방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보며 기쁘다. 그것은 비록 그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꿀씨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그는 알기 때문이다. 행운의 공여자인 아버지를 알고 알아봄으로써 너희들은 행운의 공여자의 직계 자녀들이 되었다. 전체 사이클에서 다른 어떤 영혼도 이 행운을 갖지 못하며, 아무도 그런 행운을 받을 수가 없다. 그와 함께 다른 아무도 너희들만큼 번영하거나 부유할 수가 없다. 어떤 이가 아무리 대단한 백만장자라 해도 아무도 너희 자녀들이 받은 보물을 볼 때 너희들에 비교될 수 없다. 너희 자녀들은 발걸음마다 수백만의 소득을 벌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한 발걸음을 아버지의 기억 속에 머물고, 두 걸음 또는 몇 발걸음을 바바의 기억 속에 내딛는다면, 하루 종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수백만을 축적하겠느냐? 하루에 수백만을 벌 수 있는 다른 누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만일 너희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을 보고 싶거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영혼들을 보고 싶다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라고 말한다.

너희 자녀들은 단지 물리적인 부라는 한 가지 보물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단지 물리적인 부만으로 부자인 반면 너희 자녀들은 참으로 많은 보물들로 흘러 넘친다. 너희들은 너희의 보물들의 목록을 아느냐? 물리적인 부는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또한 지식의 보물, 힘들의 보물, 모든 미덕들의 보물, 행복의 보물,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받는 축복의 보물을 갖고 있다. 아무도 너희 신의 자녀들 외에는 이런 불멸하는 보물들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밥다다는 그런 보물들의 주인인 너희 자녀들에 대해 참으로 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녀들이 끊임없이 가득 차 있고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며, 밥다다는 “오, 자녀들! 와!” 노래를 부른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 그런 영적인 자부심, 즉 도취감을 갖고 있느냐? 손으로 박수를 쳐도 좋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왜 너희들은 양 손에 이 어려움을 주느냐? 한 손으로 박수를 쳐라! 너희들은 한 손으로 박수치는 법을 알지 않느냐! 브라민들이 하는 모든 것은 독특하다. 브라민들은 평화를 몹시 사랑한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박수치는 것이 좋다. 너희들 모두 이 도취감을 갖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그것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

시간의 빠른 변화 속도를 보며 밥다다는 또한 계속 자녀들이 하는 노력의 속도도 본다. 밥다다는 각 자녀가 언제나 삶 속에 해방된(지반묵티) 단계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 모두 모든 이에게 이 도전을 한다: “와서 아버지에게서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의 유산을 차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해방과 해방 된 삶의 유산을 받았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했느냐?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황금시대나 해방의 나라에서는 해방이나 삶 속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합류시대에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의 유산을 경험해야 한다. 민감한 때에 상황과 문제와 분위기가 이중적으로 어려울 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지내야 한다. 이 삶을 사는 동안 너희들은 이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단 하나의 미묘한 굴레도 없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 정도로 삶 속에서 해방되었느냐 아니면 끝에 가서 그렇게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면 끝에 되겠느냐? 끝에 그렇게 되기 보다는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자들, 또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는 자들, 또는 그렇게 될 것이라 느끼는 자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모두가 손을 들었다.) 너희들은 두 상황에 대해 손을 들고 있다. 너희들은 매우 영리하다. 너희들은 지금 영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밥다다는 지금 너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부디 주의를 기울여라!” 하고 말해준다. 아버지는 단연코 각 브라민 자녀들을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된 삶을 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는 단연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알 정도로 영리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할 자들이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너희의 입 안에 굴랍자문이 있을지어다(그것이 실제로 될지어다). 너희들 모두 입에 굴랍자문을 받았느냐? 그러나 이 굴랍자문은 지금 이 때에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다. 굴랍자문을 그저 그렇게 먹지는 말아라.

이 홀의 아름다움은 매우 좋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으로 화환과 같다. 의자를 가진 자들의 화환도 또한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좋다. 너희들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 순간 의자를 가졌다. 너희

들은 지금 이 때에 의자를 받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밥다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삶 속의 해방이라는 의자에 앉도록 호각을 불 때에도 너희들은 의자에 앉겠느냐 아니면 그저 지금 그 의자에 앉은 것으로 괜찮으냐? 의자에 앉아도 좋다. 지금 이 때에 바닥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때에 의자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먼저일 것이다. 바닥에 앉는 것은 타파시야의 표시다. 그것은 건강이 좋다는 표시다. 너희들은 타파시야를 통해서 이 건강도 갖고, 또한 보물들의 부도 갖는다. 따라서 건강과 부가 있는 곳에는 단연코 행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건강하고 부유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늘 밥다다는 자녀들 가운데 세 종류의 단계를 보고 있었다. 한 그룹은 노력가들의 그룹이다. 어떤 이들은 노력가들인 반면 다른 이들은 집중적인 노력가들이다. 둘째 그룹은 노력의 결과로서 삶 속에서 해방된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완전한 단계는 몸 안에 있으면서도 몸 없는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바는 이 세 단계들을 보았다. 그는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자들을 더 많이 보았다. 삶 속의 해방이라는 보상은 너희가 센터에서 도구가 된다거나 좋은 강연자가 된다거나 드라마에 따라 특별한 봉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너희가 앞으로 더 전진하게 도와주고 너희가 모든 이에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승강기일 뿐이다. 진정한 보상은 삶 속의 해방이라는 보상이다. 어떤 굴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지식을 갖지 않은 평범한 영혼들의 형상을 수많은 밧줄에 묶인 자들로 묘사한다. 실제로 그것들은 지식을 갖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쇠사슬이다. 그것들은 엄청난 굴레들이다. 그러나 지식을 가진 영혼인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이 아주 미묘하고 매력적인 실들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아주 미묘하고 왕족다운 굴레들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볼 때는 이 실들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자신의 좋은 점들을 본다. 실제로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자신이 아주 훌륭하다고 느끼고 아주 빨리 전진하고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밥다다는 대다수에게서 이런 삶 속의 굴레의 실들을 보고 있었다. 너희에게 한 가지 굴레 또는 심지어 절반의 굴레든, 삶 속에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자들은 아주 소수다. 따라서 밥다다는 이 잔고에 따라 둘째 단계는 삶 속에서 해방되는 단계임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는 몸 없고, 몸에서 분리된 단계다. 너희들은 이 단계와 바바가 설명한 단계를 창조하는데 아주, 아주,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자녀들이 1999년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밥다다가 말한다: 1999년에 관한 이 의문은 제쳐두어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몸 없는 단계를 무척 많이 경험해야 한다. 지금 닥쳐오거나 앞으로 닥쳐올 어떤 상황을 위해서도, 너희들은 몸 없는 단계를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또한 “이것이 일어날까?” 또는 “이것이 안 일어날까?”의 의문들도 제쳐놓아라. 그런 상황들이나 격동들은 어떤 것도 몸 없는 단계를 연습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비록 자연의 다섯 원소들 모두가 너희들을 흔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지라도 몸 없는 단계를 연습하는 너희들은 완전히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지낼 것이며, 우등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들은 지나갈 것이며,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처럼 우등으로 합격한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밥다다는 이따금씩 너희들에게 신호를 주어왔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많은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또한 계획도 세운다.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생각해도 좋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 놀라워하거나 경탄하며 생각하지는 말아라. 몸 없는 상태에서 초연한 관찰자로서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해라.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그런 다음 일초 만에 완전히 깨끗한 단계를 가진 자가 되어라. 이 단계가 지금 필요하다. 몸 없는 단계는 너희들이 모든 상황들을 쉽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름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몸 없는 자들은 흔들림 없고 부동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계속 게임들을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 순간들에 관해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지막 단계에 관해 생각해라.

밥다다는 사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듣는다. 밥다다는 또한 지칠 줄 모르는 봉사자들에게 그의 마음으로부터의 축복을 보내고 있다. 너희들은 많은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매우 잘 봉사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해라. 그러나 봉사와 너희의 단계 사이의 균형이 때로는 한 쪽으로, 때로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봉사를 해도 좋고 밥다다는 봉사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많은 추진력과 열의를 가지고 그것을 해도 좋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봉사와 너희의 단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라. 너희의 단계를 창조하는 데는 약간 노력이 드는 반면에 봉사는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힘이 너희의 단계의 힘보다 약간 더 커진다. 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밥다다에게서, 너희와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영혼들에게서, 그리고 브라민 가족의 영혼들로부터도 계속 축복을 받아라. 너희의 보물의 계좌에 많이 축적해라. 지금 이 때의 너희 영혼들의 축복의 계좌는 동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계속 너희의 형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득 채워져야 한다. 너희들은 여러 생 동안 축복을 주어야 하지만, 축적하는 것은 이 한 생 동안에만 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끊임없이 너희의 단계를 앞에 두고서 계속 봉사에 전진해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브라민 영혼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언제나 좋을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이 균형이 부족하면, 그럴 때는 때로는 모든 것이 좋고, 때로는 모든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었느냐? 의문부호나 감탄부호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일어날까?” 또는 “아마 이것을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단계가 요동하게 만든다. 알겠느냐?

많은 새로운 이들이 왔다. 이번 사이클에 마두반에 처음 온 자들은 손을 들어보아라. 아주 좋다. 모든 새로운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는 매우 기쁘다. 밥다다는 “환영한다 자녀들, 환영한다!” 라 말하며 대단한 행복을 가지고 너희 모든 자녀들을 환영한다. 마지막 완성 전에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좋은 일이다. 최소한 너희들은 바바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온 너희들은 모두 아직 앞으로 전진할 기회가 있다. 따라서 너희들 모두 이제 이 황금 찬스를 잡아야 한다.

구자라트에서 온 쿠마리 그룹이 바침 의식(surrender ceremony)을 위해 왔다. (38명의 쿠마리들의 바침 의식이 11월 13일에 암다바드 델라에서 개최되었다.) 너희가 자신을 바친 것은 아주 좋다. 너희들은 봉사를 했고, 축하했고, 또한 봉사를 통해 너희의 행운을 만들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어떤 바침 의식을 축하해야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이미 축하했고,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밥다다는 이 전체 그룹이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바침 의식을 축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용기가 있느냐? 만일 용기가 있다면, 한 손으로 박수를 쳐도 좋다(손을 들어라). 서로를 보며 손을 들지 말아라. 암다바드는 축복을 갖고 있고, 또한 봉사의 열매와 힘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런 바침 의식을 축하해라. 그러면 밥다다가 너희들을 축하해줄 것이다. 이것이 괜찮으냐? “나 먼저” 다. 이를 위해 남들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은 더 오래된 자들이 하고 나면 그걸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에 있어서는 “나 먼저” 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괜찮으냐? 앗차. 너희들끼리 이에 관해 마음을 터놓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라. 아주 좋다.

(편잡에서 온 자들이 첫 그룹에 봉사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것은 훌륭한 큰 그룹이다. 너희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았다. 밥다다는 특히 편잡에서 온 자들에 대해 특히 한 가지를 축하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편잡에서 온 자들은 아주 척박한 땅을 매우 기름지게 만드는데 아주 잘 전진했다. 너희들은 매우 잘 전진했다. 그러므로 축하한다. 편잡은 사자로서 기억되어 왔다. 너희들의 다디(다디 찬드라마니)도 또한 편잡의 암사자로 불리었다. 따라서 너희들 모두가 사자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자가 무엇을 사냥하겠느냐? 염소들이냐? 일등의 사자는 다른 사자를 사냥하는 사자다. 편잡 땅은 아주 좋아졌지만 이제 특별한 상속자를 창조해라. 이것이 사자의 먹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만들레시와르들에게 봉사해서 다음 시즌에 그들을 여기에 데려와야 한다. 다음 시즌에 우리는 편잡에서 몇 명의 상속자들이 오는지를 볼 것이다. 앗차. 봉사의 향기가 매우 좋다. 너희들 모두 충족감을 유지하고, 또한 남들도 만족시킨다. 앗차. 축하한다.

(많은 이중외국인들도 왔다.) 외국인들 그룹은 일어서 보아라! 밥다다는 외국인들의 한 가지 특질을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이나? 너희들 모두 구석구석에 아버지를 위한 장소를 만들려는 많은 열의와 열성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다. 올해에 몇 개의 새로운 센터를 세웠느냐? (12~15개입니다.) 너희들은 온 사방에 메시지를 전하려는 좋은 열의를 갖고 있다. 이 목표는 아주 좋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도구를 창조하려는 아주 훌륭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특질이다. 너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 자신을 봉사를 위한 도구로서 내 놓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다. 너희들 모두 각 가정마다 바바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 열의와 열성은 매우 좋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가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사전에 너희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밥다다는 외국 인들에게, 즉 세계의 유익을 위한 도구인 자녀들에게 말한다: 해외에서 온 너희 자녀들은 이제 봉사와 몸 없는 단계를 창조하는데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언제? 1999년에 아니면 2000년에? “언제요?”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라 말해라. 너희들은 너희가 아비약트 바바에게서 받은 부양의 실질적인 증거를 주어야 한다. 아버지 브라마는 몸 없는 단계를 통해 아비약트가 되고, 카르마티트가 되었다. 너희들은 특별히 아비약트 브라마의 부양을 받을 가치가 있고, 따라서 너희들은 몸 없이 되는 형태로, 봉사와 너희 단계 사이의 균형이라는 형태로, 아비약트 부양에 대한 응답을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괜찮으냐? 동의하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 밥다다는 너희가 “두고 보겠습니다.” 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해야 한다. 너희 자신의 언어로 “나는 이걸 해야 한다.” 고 말해라. TV로 보고 있는 자들 모두, 너희들도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밥다다는 너희가 브라타에서 TV를 보고 있든 해외에서 보고 있든, 모두가 단연코 이것을 행하려는 열의를 갖고 있음을 보고 있다. “나는 단연코 이것을 해야 한다.” 미리 축하한다. 앗차.

온 사방의 가장 복 있는 자들에게, 가장 고귀한 보물들의 주인인 자들에게, 끊임없이 봉사와 자신의 단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깨어 있는 영혼들에게, 모든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굴레로부터 자유롭고 삶 속에 해방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시험과 문제들이 올 때 시들지 말고 끊임없이 승리하며 재미를 경험해라.

이 노력하는 삶 속에서 시험과 역경은 드라마에 따라 단연코 올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전진하려는 목표를 가져라. 즉 시험과 문제를 불러들여라. 너희들은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길가에 주변풍경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장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정해주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연결이 느슨해지고, 재미가 있는 대신 너희의 마음이 시들게 된다. 그러므로 “와 풍경들! 와!” 의 노래를 부르며 계속 앞으로 전진해라. 즉 끊임없이 승리하라는 축복을 받아라.

슬로건: 마리아다에 따라 움직여나간다는 것은 가장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